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라

어느 조직이나 분야에서든 은퇴자는 있기 마련이다. 나간 만큼 들어오니 은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의 은퇴는 예전과 비교하면 당혹스러운 면이 많은 듯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관리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생각보다 '젊은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예전 은퇴자들과 달리 '또 다른 전문가' 활동을 갈망하거나 '새로운 좌표'를 탐색하는 이가 늘고 있다. 이제 '은퇴'도 새롭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어원을 살펴보면 '은퇴하다'의 의미는 'retire'이다. '타이어를 갈아 끼워'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이어를 새롭게 했는데도, 과거의 '명함', '과거의 전문성'에 묻혀 추억을 먹고 사는 이가 있다. 과거에 대기업 이사, 은행 지점장이었다 해도 지금 옆집 총각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다. '그때의 호칭'에 집착하거나 연연해선 안 된다. 타이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명함'을 내려놓는 일이다. 예전에 '육십 평생'이란 말이 있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은퇴는 그 종착점을 의미했다. 그러다 수명이 길어져 70대 초중반까지 살게 되면서 '남은 인생'이란 뜻으로 '여생'이란 말을 쓰게 되었다. 이때는 은퇴 후에 손주 돌보거나 휴식 등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다. 살아갈 날

은 한참 남은 데다가 몸은 의외로 괜찮고 생각보다 젊다. 이들 상당수는 사회 재참여를 원한다. 뜻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노후자금이 넉넉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일을 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를 꿈꾸며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은퇴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이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여생' 즉 '쓰다남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은퇴 후 삼십 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몇 번 바꾸고도 남은 시간이다. 은퇴 전의 삶이 내게 소중했듯이, 은퇴 후 삶도 똑같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제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은퇴 후 '두 번째 인생'

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집중하고 후반전은 대중 시시하게 뛰거나 하지 않는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비중이 같다. 오히려 후반전에 명승부가 펼쳐지기도 한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동등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은 '쓰다남은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설렘을 줄 수 있는 '두 번째로 주어질 삶'이다. 전반전 인생처럼 후반전 인생에도 당연히 사춘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반전 인생처럼 후반전 인생에도 고만고만한 상처나 아픔 정도는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생에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꿈꾸던 그 무언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멋들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사설

버스준공영제 재정 부담 개선 노력 필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타지역의 실상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체들은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주 역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버스업체의 배당 불리는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따르지 않아 격정적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의 표준원가에 따라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65억원을 준공영제에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924억원으로 소폭 줄었을 뿐 내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업체에 유리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지자체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버스업체에 한정면허로 운영권을 위

편집국 25시

한반도 비핵화 중재역, 복기(復棋)가 필요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halla.com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회담 결렬의 여파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됐다. 최근 북한은 두 차례 발사체 도발도 감행했다. 2017년 11월 ICBM 도발 이후 1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두 손을 맞잡은 일이 아직 선명하다. 시곗바늘은 마치 2년 전 문재인 취임 당시에 되돌려진 듯한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도 요란한 행사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보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핵 위협이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열차를 타고 대륙으로 여행길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국민들은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 등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정부도 국민들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연다면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곧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시 꼬여가는 듯한 북·남북 관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4차 정상회담을 제의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부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지원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이끌며 북미 핵 담판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중재역할에 의문점이 제기된만큼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것인지 '복기(復棋)'해야 할 시점이다. 완전히 다른 비핵화 목표를 가진 북미의 '동상이몽'을 중재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뉴스-in

“도민권한 강화 조례는 찬성”

김의장 '보전조례 입장' 표명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보류 결정했지만 내 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 김 의장은 이날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향만·공향 건설은 국책사업이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도민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조례안을 만들면 주민들의 권리와 함께 다양한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표성준기자

한 상태로 만약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 해당 업체는 이미 감자를 했더라도 다시 증차 신청을 낼 수 있어 총량제 효과는 반감. 렌터카업체는 다시 증차 신청을 할 것이라는 질문에 한동안 뜸을 들이다 "도와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이상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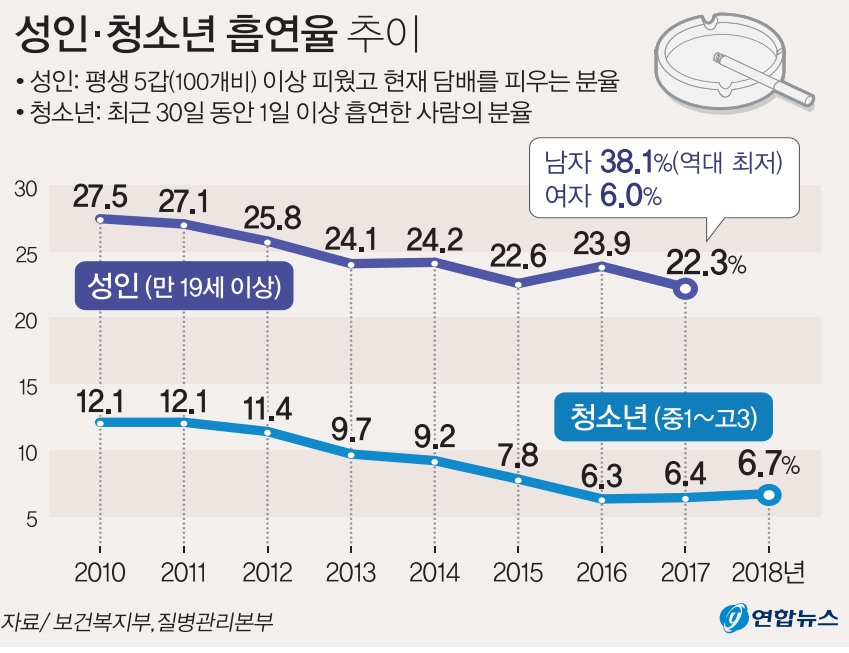
공론화 의제 '편한 교복' 관심

○...제주교육 공론화 예비의제가 4개로 압축된 가운데 이 중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편안한 교복)'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드러내 최종 의제 선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예비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도민청원코너에는 티셔츠 등 편안한 생활복, 후드 체육복, 조끼 대신 가디건, 마이 대 신 점퍼로 교체 등 대부분 '교복 개선' 관련 글이 게재. 한편 도교육청은 24일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의제를 선정할 예정. 오은지기자

모 렌터카 업체 진정성 의문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도내 렌터카 업체가 감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지난해 거부된 증차 물량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 업체 2곳은 지난해 제주도가 렌터카 증차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그래픽 뉴스



부고 고정호(삼성포장 본부장) 아버지 제주고공 일보(향년 80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21일 21시 40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4일(금)
발인일시: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1층 2빈소
장 차: 양지공원

부고 임경철 어머니 경주김씨 순에(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22일 06시 3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3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화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한울누리공원
아들 임경철 며느리 강명숙
딸 임여선 사위 조찬주
동연 강군욱
월선 장재원
손자 임대범
외손자 강보배
*연락처: 임경철 010-7233-9899
장재원 010-9839-7703
임월선 010-7309-8294
임대범 010-9775-5403
강보배 010-9944-667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옥택(향년 9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5월 23일
아들 김영수 주군근 며느리 한복인수
딸 김영순 주군근 강춘람
외손자 주군근 조태웅
외손녀 주군근 홍성범
외손녀 주군근 고성문
외손녀 주군근 고병현
당사에서 제조하는 펌백 퍼트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허가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펌백퍼트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 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정 증후군·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펌백퍼트치드 추출 전문기업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